행정사무감사 때 거짓 증언한 증인 고발

인천시의회, 인천교통공사 간부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 지장 초래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물의를 빚었던 인천교통공사 증인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물의를 빚었던 인천교통공사 증인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

지난달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8일 인천교통공사(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 간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시 이용창(국 · 서구2)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 간부 A 씨를 상대로 질문한 개인차량을 공사 협력업체에서 정비받았다는 의혹과 감사실 업무용 차량의 부정적 사용 등에 대한 답변이 공사 특별조사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우선 개인차량의 공사 협력업체 방문 · 정비에 대한 이용창 의원의 질문에 A 씨는 지난 2020년 4월과 7월 두 차례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장애인콜택시) 정비업체에 개인차량을 방문 · 정비 맡길 때 "그 업체가 인천교통공사 하청업체인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사가 지난해 말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정비 협력업체 방문조사 및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공사 직원이 협력업체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공사 감사관실 업무용 차량을 운전한 직원들이 부정한 업무지시로 인해 개인 운전 지시까지 받았다는 사항과 관련해 이용창 의원의 "직원들을 운전시킨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A 씨는 "공적으로 딱 한 번"이라고 답변했다.

이 또한 공사 차량 운행일지에 총 6회(사적사용 포함)에 걸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거짓 증언으로 밝혀졌다.

이번 A 씨에 대한 인천시의회 고발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에 따라 이뤄졌다.

인천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받은 후 증인 선서를 하고서도 증인 신문 시 위증해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인천시의회 본연의 권한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안종삼 기자

소식지 '경기도의회' 전면 개편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 "소통과 홍보 강화에 집중"

경기도의회가 "'공감'과 '소통'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통해 도민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심에는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위원장 정윤경, 편찬위)가 있다.

편찬위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올해 첫 연찬회에서 올 한해 소식지 제작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편찬위의 자문 · 심의 기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소식지 '경기도의회'가 전면 개편된다. 도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다루는 지면이 대폭 늘어나며, 각 의원들의 정치철학과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인터뷰 코너도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의 문화와 역사를 다룬 여러 가지 신규 코너도 선보인다. 최근 전구간이 개통된 경기옛길 이야기, 각 지역의 마을공동체 소개, 독도 바로알기, 탄소중립을 위한 슬기로운 환경 생활 등이 새로 선보인다.

특히 의정활동과 도민 읽을거리 섹션을 구분하지 않고 조화롭게 배치해 읽는 재미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외 편찬위의 심의 대상 확대 등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소식지에 제한된 심의 범위를 만화 조례 등 각종 인쇄물을 포함해 확대하는 방안들이 제안됐다.

정윤경(민주당, 군포1) 위원장은 "도민들께서는 그 지역의 도의원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며 "매월 10만부를 발행하는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통해 의원님들의 활동상을 상세히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편찬위가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한다는 목표로 조례 개편 등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편찬위는 도의회 간행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편집방향 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정윤경 위원장,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부위원장, 김용성(민주당, 광명4) · 이병길(국민의힘, 남양주7) 의원을 비롯해 제갈임주 전 과천시의회 의장, 전현탁 디자인그룹 '디따' 대표 등이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 각 공공기관 및 지역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발행 · 배포 중이며 전화 및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김인창 기자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성숙 인천시의원 대표발의 보건인력 양성·근무환경 개선

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보건의료 인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심의 ·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교육 · 훈련 △보건의료 인력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1'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우리나라 활동간호사는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OECD 수준(7.9명)보다 훨씬 낮다.

또 간호대학 졸업자수는 독일 · 일본과 비슷하지만,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독일(11.8명) · 일본(9.4명)이 한국(4.2명)보다 2~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해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는 연평균 5.9% 증가한 39만1493명이고, 활동간호사율도 조금씩 늘고 있으나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임금, 결혼 · 출산 · 육아 등의 어려움으로 비활동간호사 비율이 27.2%(10만6396명)에 이른다.

장성숙 의원은 "적정 숫자의 의료인력 수급 및 합리적인 근무환경은 의료 질과 직결된다"며 "조례안 제정으로 체계적인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의회 단신

연천군의회 신년 언론인 간담회

"적극적 의견청취·소통"

연천군의회는 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새해 첫 연천군 출입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의회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의원들과 언론인과의 다양한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심상금 의장은 "연천군의 행복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2023년 연천군의회는 언론인 및 집행부와 적극적인 의견청취와 소통을 통해 연천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대 기자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추진

유영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의원은 지난달 30일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양성평등담당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변경과 관련해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의무점검(연 2회 이상)은 도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외부업체에 위탁해 학교 · 기관의 화장실(샤워실 · 탈의실)에 대한 불법촬영 불시 점검실시 △의무점검 외에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 · 기관은 자체 점검, 유관기관 협조, 외부업체 위탁을 통한 상시적인 불법촬영 점검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지난 지난해 11월21일 제365회 정례회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학교와 교육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화장실 등 공공장소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인창 기자

유영두 도의원이 지난달 30일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양성평등담당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변경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평택중앙상인회와의 간담회 열려

이기형 평택시의회 의원

평택시의회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중앙상인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의회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 ·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 · 이윤하 의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관계 공무원, 평택중앙상인회 및 평택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중앙상인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며 다방면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됐으며 △JC공원 지하주차장 및 공원 조성 사업 관련 주변 환경 개선 건의 △도로 노면 정비 등 도로환경 정비 건의 △개방화장실 신규 설치 건의 △JC공원 일대 우범지역화 방지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건의 등 여러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평택역 상권은 평택의 역사와 함께한 상권이자 오랜 시간 시민들의 커뮤니티 역할을 해온 지역 경제의 근간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크고 작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는 상인회의 크고 작은 건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오늘과 같이 집행부와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훈 기자